

전북자치도 농특산물 판매 촉진 ‘맞손’

전북농협-카카오메이커스, 상생협력 협약 체결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카카오메이커스가 14일 농협 전북본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일 농협 전북본부 본부장, 김정민 카카오메이커스 리더 외에 카카오메이커스 및 농협 전북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8월 동김제농협과 함께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예담채 셀러드"를 카카오메이커스에 공식 입점했다. 전북 원예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예담채를 활용한 "예담채 셀러드"는 전북 관내 우수 스마트팜 농가에서 생산한 프리미엄 유통형 상추를 활용해

만든 샐러드로 현재까지 누적 주문 1천 건 이상을 달성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보였다.

전북농협과 카카오메이커스는 신선하고 안전한 전북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전북 농특산물 기획전 등을 진행해 판매 활성화 및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전북 관내 생산 특화 품목 및 전라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농협 김영일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농산물의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 구축 및 고품질의 전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카카오메이커스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전북농협과 카카오메이커스가 14일 농협 전북본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통해 전북 관내 농업인에게 더(THE)겠다."고 밝혔다. 칭찬받는 전북농협을 만드는데 힘쓰

/이만호 기자

상호협력 통합방위태세 구축

한전 전북본부-육군 제35보병사단,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는 지난 13일에 한전 전북본부 전력관리처에서 육군 제35보병사단(사단장 김광석)과 상호협력 및 지원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한전 전북본부에서는 △재난 발생시 군부대 전력 우선공급 △고장예방을 위한 수전설비 점검 등을 지원하고, 35사단에서는 △한전 전력시설 경계·방호 관련 지원 △긴급 재난 발생시 복구 병력 및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원섭 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상호 유기적 협조하에 통합방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안·방호태세가 확립된 가운데 지역내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계획된 전력설비 견학 및 격려활동 등을 통해 국가 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35사단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광석 35사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민·관·군·경·소방 등 국가 방위요소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한전 전북본부와의 업무협약식은 양 기관의 전·평시 가용능력 발휘를 보장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13일에 한전 전북본부 전력관리처에서 육군 제35보병사단과 상호협력 및 지원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완화하고, 지역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기관의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을 위해 한전 광역제

통운영센터와 35사단 지휘통제실간의 Hot-Line을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고, 협력 및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수시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활동 참여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강정구)은 올 겨울 가장 추운 한파를 예상하는 가운데,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스한 온정을 나누고자 14일 전북 사회복지협의회와의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내 소외계층의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난방용품 지원하고 롯데백화점 전주점 점장을 비롯해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하여 총30여명이 완산구 관내의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1,000장과 겨울난방유를 전달하였다.

이날 연탄배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연탄 한 장 한 장에 추운 겨울 이웃과 함께 따스한 온정을 나누고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옥기 기자

농신보전복센터, '쌀 소비 촉진' 아침밥 중요성 교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북지역 보증센터(이하 농신보전복센터)는 지난 13일 센터 회의실에서 효문화연구원 최규섭 교수를 초청하여 직원들에게 쌀 소비 촉진 관련 아침밥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아침밥상과 부모의 역할, 아침밥의 좋은 점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아침밥을 먹으면서 해야 할 실천지침'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인순 센터장은 "금번 교육을 통해 아침밥이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효능에 대해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며, "농신보전복센터 직원들 개개인이 '아침밥 먹기 캠페인' 홍보대사가 되어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중기중앙회에서 '2024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 열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우수 제품 현장 판매 등 진행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4일 중기중앙회에서 '2024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계의 자발적인 후원물품을 모아 지역 소외 계층에게 사랑과 온정을 전달하는 연말연시 중소기업계 대규모 나눔 문화 축제이다.

3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물품 후원에 참여했으며, 15만점 상당의 생활용품, 아동도서, 주방용품 등 우수한 제품들이 현장을 가득 채워 풍성한 사랑나눔 분위기를 만들었다.

나눔 페스타 개막식에서는 중소기업 CEO와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연합동조합의 기부금 전달과 △우원식 국회의원 △반기문 UN 전사무총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저명인사 및 유명 연예인, 스포츠스타의 애정품 경매가 진행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해 침체된 소비 분위기를 전환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비용이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지원비용으로 이어지는 나눔축제의 현장"이라며, "앞으로도 재단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 페스타의 판매수익금 은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용품 지원, 중소기업 자녀 장학금 지원, 군경부대 위문품 전달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건협 전북, '대표회원의 날' 성황리 개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13일 세종필드GC에서 대표회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대표회원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협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도회 대표회원의 사기진작과 결속을 다지는 친선행사와 전북지역 건설업계 현안 등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어, 2024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건설업체 경영지원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용과 같은 형사방어비용(무죄

판결시) 등을 보상에 주는 건설공제조합의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소재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건설업계가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건설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협회를 중심으로 지혜와 힘을 합쳐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며,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지역내 대형 건설사업 참여와 적정공시비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